

60~70년대 가난·시름 잊게 한 '국민 영웅'



김일이 일본인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와 관중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치기왕' 김일은 누구

역도산에 레슬링 배워 세계 챔피언 10년 투병 77세에 '하늘의 링'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60~70년대 호쾌한 박치기로 거구들을 쓰러뜨리며 전 국민을 흥분시켰던 프로레슬러 김일.

은퇴 후 혹독한 훈련과 치열한 경기의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후배들을 격려하며 프로레슬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김일이 오랜 투병 끝에 26일 낮 12시 17분 눈을 감았다.

요즘처럼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번번하게 즐길 거리가 없었던 시절에 프로레슬링은 전 국민을 흥분TV 앞에 끌어 모았던 최고의 인기 종목이었고 그 중심에는 김일이 서 있었다.

1929년 전남 고흥의 한 섬마을에서 태어난 김일은 당시로서는 장신인 180cm의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마을 씨름대회를 휘어잡았다. 동네 장사로만 남을 수 없었던 김일은 한 잡지에서 세계프로레슬링 챔피언에 등극하며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역도산의 기사를 보고 1956년 일본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밀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그는 곧 경찰에 잡히게 되고 1년간의 형무소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도 김일은 역도산에게 프로레슬링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끊임없이 보냈고 이에 역도산은 보증을 서 김일을 형무소에서 빼내게 되고 1957년 그를 문하생으로 받아들여 준다.

이후 김일은 자육훈련을 견디며 박치기 기술을 연마했고 1963년 스승인 역도산이 과환의 흥기에 찢려 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링에 올랐다. 6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에서 챔피언에 오른 김일은 이듬해 세계헤비급 챔피언에 등극, 최고의 인기와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평탄하지 못했다. 경기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김일은 87년 아내를 백혈병으로 떠나 보냈고 경기 후 유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자신도 출근

■ 고향 고흥 빈소 표정

그 김일씨의 고향인 고흥에서는 '고흥의 자랑이자 전남의 살아있는 전설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반응과 함께 평소 고향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고인의 애향정신을 기리며 고인을 애도했다.

김씨의 옛자리인 고흥군 금산면 거름도 주민들은 "김씨 덕분에 섬지역이면서 4~5년 빨리 전기를 쓸 수 있었다. 지금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을 기렸다.

지난 1963년 프로레슬링 세계헤비급 타이틀



경력
1957년 역도산체육(랜드크) 문하생 1기 입문
1958년 '오오키 간다로'라는 이름으로 데뷔
1963년 WWA 세계 태그챔피언 획득
1964년 북아메리카 태그챔피언 획득
1965년 서울 국동헤비급챔피언 획득
1966년 도쿄 아시아태평양태평양 챔피언 획득
1967년 WWA 세계헤비급챔피언 획득
1972년 도쿄 인터네셔널 세계헤비급챔피언 획득
1995년 일본 도쿄도에서 은퇴식
2000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은퇴식

병일 신세를 져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 보낸 맏내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면서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종종 후배들의 프로레슬



26일 지방으로 별세한 '박치기왕' 고 김일 선생의 빈소가 마련된 하계동 을지병원 영안실에서 선생의 제자인 이왕표 한국프로레슬링연맹 회장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링이나 각종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왕년에 링에서 호령했던 박치기왕 김일의 모습도 더 이상 찾아 보기 어려웠다.

국내에 머무르면서 후배 양성도 프로레슬링 재건 사업에 힘을 쏟아 분기도 한 그는 95년 4월 일본 도쿄도에서 일본 무대 공식 은퇴식을 갖기도 했다. 국내 은퇴식은 2000년 3월 장충체육관에서 가졌다.

최근에는 프로레슬링 경기나 관련 행사가 있을 때면 그는 어김 없이 모습을 나타냈고 30년 이상 된 예제자 이왕표와 수시로 접촉하며 레슬링 발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월에는 언제 다시 찾을 지 모르는 스승 역도산의 묘지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고 '레슬링 쇼' 파문으로 41년 간 서로 등을 돌리고 지내왔던 '백트롭의 명수' 장영철을 방문해 뒤늦게 화해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대장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으며 한 때 생명이 위태롭기도 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왕표씨의 간병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회복돼 사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달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특별 시구자로 나선 김일은 휠체어를 탄 채 힘차게 공을 뿌렸지만 이것이 팬들을 위한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고향마을 전깃불 들어오게 해줬는데...”

을 획득한 김씨가 인사차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향에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것.

김씨의 고향 사랑은 그 외에도 계속돼 가름이 극심했던 65년에는 수십대의 양수기를 고향에 전달했으며 75년부터 4년간 금산중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같은 애향심에 보답하기 위해 금산면민

들은 지난 94년 10월, 3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고인의 생가 인근인 금산면 어전리 평지부락에 '김일 선수 공적비'를 세웠다.

주민 김세만(59)씨는 “고향과 관련된 민원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어른이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 전대통령과 인연이 깊었던 고인이 '10·26'에 운명을 달리 했다는 사실을 화제에 올리기도 했다. /고흥=주강중지자 gjju@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민주당이 이겼다고?



임동옥
서울 취재팀장

10·25 재보선 다음날인 26일, 민주당은 활기에 넘쳤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포함한 열린우리당의 통합합계조건 3원칙을 공식 제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호남 표심을 토대로 한 정계개편의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듯했다.

민주당은 물론 이번 재보선 지역 중 국회의원 선거구인 해남·진도에서 승리했다. 신안군수와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에게 패배, 체면을 구기기는 했지만 열린우리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뒷날인 호남의 주도권을 사수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민주당은 '여권 정계개편의 중심은 민주당'이라는 것을 호남 민심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재확인해 줬다며 향후 예상되는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과시했다.

한 대표의 또 한, 향후 예상되는 정계개편과 관련해 “정계개편의 시동은 열린우리당에서 출발할 것이지 열린우리당이 어떤 변신을 꾀한다 하더라도 그 얼굴, 그 형태론 노무현 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접촉하지 않으면 새롭게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 후보자들은 모두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조간간 무소속 당선자들이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낙관론은 아전인수격 해석이 강하다. 한화갑 대표의 지역구인 신안군수 선거와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정책위의장인 최민기의 지역구인 화순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데는 민심의 무서움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몰락한 이후 '사측생 생존사'의 절치부심 끝에 각종 재보선 선거 등을 통해 힘을 길러왔다. 그들은 국회의원 12명의 미니정당을 이룬 신안·화순·과거의 배로 왜군을 쳐던 역사를 인용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세력 대통합과 정권 창출을 해나가겠다고 기업을 토해왔다. 사실 지난 몇 년을 보면 상당한 성과도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초심을 잃으면 되겠는가. 민주당은 소규모 선거의 승리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이긴 게 아니다.

/tuim@kwangju.co.kr

www. **홍스카이** .kr 이대리가구 전문점

● 신안군수 재보선 1위 후보 이대리가구 1차 투표에서 당선된 **홍스카이**의 홈케어입니다. ● 홍스카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신안군수** 15년간 주재

● 1. 고흥=홍스카이구 2-3층=한대리가구 **차액 : 50%** 세일가구

홍스카이 홈케어 (신안-제1차) **홍스카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2005년 대통령 신안군수 수상기념 2005년 "신안" 발행 기념 "신안" 발행 기념

홍스카이홈케어 대표의 신기술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 1. 실내 온도, 습도, 공기질 등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 2.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 3. 난방 기능이 있어 겨울철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초달성 우수 제품 품질 서비스”

렌탈 (보증금, 계약금, 대금)

- 1. 보증금 100만원, 계약금 50만원, 대금 100만원
- 2. 보증금 50만원, 계약금 25만원, 대금 50만원
- 3. 보증금 30만원, 계약금 15만원, 대금 30만원
- 4. 보증금 20만원, 계약금 10만원, 대금 20만원

신안군수 홍스카이 ● 우편, 전화 문의 ●

011-855-4222
090-701-7117